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북한산·오동근린공원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를”

구본승 의원, “부적합 판정 후 매월 재검사 실시” 주장



구본승 의원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2월15일 개최된 제184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약수터 등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날 구본승 구의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내의 먹는 물 공동시설 17개소는 비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를 제기했다.

또한 관리대상인 13개소(구청관리 3개소,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 10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부적합 판정 후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매월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둘째, 매년 7, 8, 9월에 음용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로 접어드는 6월에도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셋째, 음용부적합 판정 후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발언을 마치며 구본승 구의원은 “강동구는 지난 8월부터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정비 및 수질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북구도 주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먹는 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북부신문 10면

북한산, 오동근린공원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해야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

184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약수터 등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내의 먹는 물 공동시설 17개소는 비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관리대상인 13개소(구청관리 3개소,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 10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7, 8, 9월에 음용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로 접어드는 6월에도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셋째, 음용부적합 판정 후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오동근린공원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 제기 부적합 판정 후 매월 재검사, 비관리대상 17개소 수질검사 실시해야



구본승 강북구의 회 행정보건의위원장 (미아,송중,번3동)은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제184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약수터 등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내의 먹는 물 공동시설 17개소는 비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를 제기하였다.

또한 관리대상인 13개소(구청관리 3개소, 국립공원관리공단관리 10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첫째,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부적합 판정 후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매월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둘째, 매년 7, 8, 9월에 음용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로 접어드는 6월에도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셋째, 음용부적합 판정 후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발언을 마치며 구본승 의원은 “강동구는 지난 8월부터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정비 및 수질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북구도 주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먹는 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동북일보 5면

5분 자유발언

“부적합 판정 후 매월 재검사, 비관리 대상 17개소 수질검사 실시해야”

구 본 승 의원
(번3동, 미아동, 송중동)

강북구의회 구본승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송중,번3동)은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제184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약수터 등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전, 북한산국립공원 관내에 있는 17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은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구청의 서면 답변이 있었으며, 이러한 비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북한산을 이용하는 강북구민과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비관리 대상인 17개소의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구청이 적극 나서서 관계 기관 및 관리자와 협의해



▲ 구본승 의원.

수질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또한, 구청관리 3개소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10개소, 총 13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검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지금까지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여름철인 3분기는 월 1회를 실시하여 연간 총 6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음용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는 주변청소 실시, 시험성적서 게재, 음용부적합 안내문 게재의 조치를 취하고 4계절에 걸친 1년간의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쇄한다.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면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음용부적합 판정 후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매월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매년 7,8,9월에 음용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여름철로 접어드는 6월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 ▲음용부적합 판정 후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지난 10월에 폐쇄된 운산샘은 음용부적합 판정이 나면 게시판에 부적합을 게재하였지만, 이 게시판이 물 뜨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음용을 막는데 효과가 적었다며 물 뜨는 곳을 그물 등으로 덮고 안내문을 부착, 게재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강동구는 지난 8월부터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정비 및 수질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북구도 주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먹는 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